

“대통령 가정사 미화 안돼” 즉각 폐지 촉구

국정교과서 현장본 공개…지역 교사·시민단체 반응

“5·18 축소하면서 5·16은 근대화 혁명이라니” 비난 빚발
장휘국 교육감 “박정희 긍정적 측면만 부각…채택 않을 것”
역사교사모임 등 정통 역사학자 빠진 군·현대사 편향성 지적

철저히 베일에 싸였던 국정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공개되면서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의 교원·시민사회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교과서 폐기를 잇따라 촉구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명의로 성명을 내고 “동학농민혁명은 별도의 성취기준을 구성하지도 않았고, 경제 성장과 새마을운동을 강조하는 등 박정희 정권의 긍정적 측면만 부각시켰다”고 비판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광주 지역 전체 90개

중학교에서 국정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정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주역사교사모임과 빛고을역사교사모임, 전교조 광주지부 등 지역 역사교사들도 국정교과서의 편향·오류 여부를 면밀히 분석,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교과서 폐지를 촉구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와 전남지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5·16 군사쿠데타를 ‘근대화 혁명’

으로, 박정희를 ‘경제 발전과 산업화의 아버지’로 미화하는 등 왜곡을 넘어 대통령 개인의 가정사를 미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도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며, 악의적인 서술로 그 의미 또한 왜곡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5월 단체 등은 중학교 역사·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5·18 당시) 민간 수습위원화와 계엄군 사이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계엄군이 병력을 투입해 전남도청을 장악했다고 기술, 평화적 협상이 이뤄지다가 결렬되면서 불가피하게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뉘앙스로 일한다고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5·18과 관련해 전두환 노태우가 내란목적 살인죄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 5·18이 국가기밀일로 지정됐다

는 점 등도 빠져 아쉬운 부분으로 언급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중학교 교과서의 경우 ‘커피란 상처를 입었다’, ‘희생되었다’ 등 추상적이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고통을 완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희망연대 정찬길 집행위원장은 “정통 역사학자들로 군·현대사 집필자들이 꾸려진 것이 아닌, 정치 경제학자들이 집필진에 참여해 편향성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교육희망연대는 29일 오전 11시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역사교과서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전남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랑의 김장 함께 해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최상준)는 28일 광주전남지사 강당에서 적십자 봉사원과 삼성전자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가졌다. 삼성전자 임직원 후원금 6000만원으로 담근 김치는 저소득층 1689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촛불은 계속된다…내일 ‘시민불복종의 날’ 선포

‘퇴진행동’ 총파업 돌입…광주·순천 등 곳곳 시국집회

지난 주말 전국에서 밝혀진 ‘190만 촛불’에 이어 노동자들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행동에 나섰다. 노동자, 농민을 포함한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 퇴진 전까지 촛불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12월까지 촛불은 계속 타오를 전망이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는 30일을 ‘시민불복종의 날’로 규정하고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중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박근혜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정권 퇴진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위해 30일

을 1차 총파업, 시민 불복종의 날로 선포한다. 모든 시민들이 하루 일손을 놓고 평일 대규모 촛불대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 단체는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의날 선포 배경과 향후 활동에 대해 “200만명의 국민이 지난 26일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였는데도 박근혜는 버티고 있다”면서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박근혜 정책 폐기를 위해 30일을 기점으로 파업규모와 시민불복종운동을 더 크게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15만명을 포함해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 서비스연맹, 공무원노조 등 소속 조합원 30만

명이 파업 결의와 연가투쟁 등에 참여한다.

광주 금남로에서는 30일 오후 4시 철도노조 호남본부, 국민연금, 보건노조(전대·조대병원) 소속 노동자 3000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가 열린다. 노동자들은 또 ‘박근혜 즉각퇴진, 박근혜 정책 폐기’를 외치며 금남로 주변을 행진하기로 했다.

순천 충효로에서도 같은 시각 전남지역 플랜트노조, 보건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 2500명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회가 열린다. 이들은 총파업 대회에 앞서 오후 2시부터 덤프트럭과 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등 건설기계와 농기계 100여대를 앞세우고 순천 팔마체육관에서부터 순천 시내까지 10㎞가량 행진도 펼친다.

광주전남지역 파업참여 노동자들은 파업대회 이후 금남로와 순천 도심에서 각각 진행되는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에 결합한다.

박근혜정권 퇴진행동은 총파업·시민불복종 선언문에서 “박근혜는 단독법이 아니며 새누리당은 공범, 국정원과 정치집찰은 부역자, 수구언론은 공범, 재벌자본은 공범을 넘어 폭동”이라면서 “박근혜정권 퇴진은 모든 부역자를 청산하는 것이어야 한다. 시민불복종으로 박근혜정권을 반드시 역사의 단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30일 오후 평일 촛불집회에 이어 광주 금남로에서는 주말인 12월 3일 오후 제6차 박근혜퇴진 광주시국촛불대회가 예정돼 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 측은 대통령 퇴진까지 촛불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안 출신 박경민 치안정감 승진…인천청장에

광주경찰청장 이기창·전남경찰청장 강성복

무안 출신 박경민(53)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치안정감으로 승진, 인천지방경찰청장에 내정됐다. 광주경찰청장에는 이기창(53) 경기남부경찰청 차장, 그리고 전남경찰청장에는 강성복(57) 경찰교육원장이 각각 내정됐다. <명단 22면>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경찰 고위간부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박경민 인천경찰청장 내정자를 비롯해 경찰대학장에 서범수 경기북부경찰청장, 경기남부경찰청장에 김양제 중앙경찰학교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발령했다.

박 인천정감 내정자는 목포고와 경찰대 법학과(1기)를 졸업했다. 2002년 총경으로 승진해 서울 강동시장,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광주청 차장, 서울청 보안부장, 경찰청 대변인, 중앙경찰학교장을 지냈다.

광주청장에는 장흥 출생인 이기창 경기남부청 차장이 내정됐다. 이 청장은 광주 서석고·경찰대 법학과(27기)를 나와 서울 중앙시장, 경찰청 정보4과장, 강원청 차장, 서울청 교통지도부장, 경기남부청 차장을 지냈다.

전남청장은 보성 출생인 강성복 경찰교육원장이 자리를 옮긴다. 강 청장은



박경민 인천청장 이기창 광주청장 강성복 전남청장

간부후보 33기로 조선대교과,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다. 곡성서장, 전남청 차장,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경기청 1차장, 경찰교육원장을 역임했다.

영암 출신의 민갑룡(경찰대 47기)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장은 치안감으로 승진, 서울경찰청 차장에 내정됐다.

이번 인사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와대가 국정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단행됐다.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의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피의자’로 규정된 박근혜 대통령이 여전히 경찰 고위직 인사에 결재권을 행사했다는 것은 국민적 퇴진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치안감까지 인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무관과 총경급 등 후속 인사도 이른 시일 안에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뢰’ 제림2구역 재개발 조합장 징역 8년

광주지법, 벌금 12억원도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도와주겠다며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된 광주제림2구역 재개발사업조합장 장모(52)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건설사 관계자 2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설계·감리업체 관계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합장으로서 재개발사업의 공경·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해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장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뇌물로 받은 돈 일부를 아파트 구입비용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조합의 운영과 무관하게 개인 용도로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하고 조합 사업에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

장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재개발사업 시공사·정비업체 선정, 도급 계약 체결 등의 대가로 건설사 등으로부터 1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합원 지위를 이용해, 재개발 이윤을 나눠주겠다고 함바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귀금속 훔쳐 나오다 경찰과 맞닥뜨린 절도범 “허걱”



○…주인 없는 집에 서 귀금속을 훔쳐 나오던 5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에 놀라 도망치던 중 발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덩미.

○28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일출직 전기기사 출신인 A(50)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47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2층 주택에서 100만 원 상당의 황금 열쇠 등 230만원 가량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

○…A씨는 범행을 마치고 도둑이나오던 중 ‘누군가 담을 넘는다. 도둑 같다!’는 동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경찰과 맞닥뜨리자 주택과 주택 사이를 뛰어넘어 도망치다가 추락해 왼쪽 발목이 부러지면서 검거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최근 불황으로 일거리가 없어 생활비라도 마련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며 패는 후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6타경 11682	8	남구 주월동 458-1 주월동호반베리디움1차 106동 13층 1301호 127.9410㎡	아파트	377,000,000	
2016타경 13305	1	서구 금호동 818 동광부정1차아파트[마재마을] 104동 4층 405호 80.1864㎡	아파트	192,000,000	
2016타경 61793	1	서구 내방로422-3, 1동 8층 803호 84.11㎡	아파트	151,000,000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16타경 11279	1	관산구 월계동 896-6 211.8㎡ 관산구 청담중앙로47번길 8-7 1,2층각124.41㎡ 3층88.62㎡ 제시외 다용도실 등 37.9㎡ [제시외건물포함]	대 단독주택	356,785,300 356,785,300	일괄매각, 2층만20년 1,202호수구분[다른부분은호수표시없음]
2016타경 11583	1	북구 중흥동 687-21 122㎡ 북구 중흥로174번길 8-6 1층57.85㎡ 2층33.38㎡ 부속건물 광1.98㎡ 변소1.65㎡ 제시외 청고 0.3㎡ [제시외건물포함]	대 단독주택	17,101,080 17,101,080	일괄매각, 문물식 지분1/5전부, 공유 자우선매수권행사 제한, 수년째반치

[대지/임야/전답]

2016타경 11682	1	나주시 왕곡면 순죽리 321-1 15501㎡	전	141,059,100	농지취득자격증명 141,059,100요, 인접도로없음
	2	동소 325 932㎡ [일부농로로사용중]	답	9,133,600	9,133,600 9,133,600
	4	동소 산34 20843㎡	임야	115,803,700	일괄매각, 목록4인 115,803,700 점도로없음, 목록6 일부농로로사용중
	5	동소 산34-5 9850㎡	임야	50,675,200	인접도로없음
	5	동소 산38-5 13696㎡	임야	50,675,200	인접도로없음
	6	동소 327 2866㎡	답	27,227,000	농지취득자격증명 27,227,000요, 인접도로없음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6타경 11682	7	동소 산37-1 11934㎡	임야	63,250,200	인접도로없음, 송 전망소재
2016타경 12425	1	달양군 수북면 대방리 산123 2경5단2무보	임야	16,244,800 16,244,800	잔지
2016타경 60462	1	나주시 안창동 373-14 66㎡ 동소 373-12 291㎡ 동소 373-5 274㎡	전	13,476,000 13,476,000	일괄매각, 농지취 득자격증명필요 목록1,6일부도로, 필요시확약요
	2	동소 373-3 1236㎡	답	21,01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현황전, 맹지
	3	동소 402-3 136㎡ 동소 402-2 823㎡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구거	13,902,400 13,902,400	일괄매각, 맹지, 매 각제외비닐하우스 1동소재
	3	달양군 무정면 오봉리 645 252㎡	답	5,292,000	농지취득자격증명 5,292,000요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6타경 11903	1	동구 수기동 45-1 145.5㎡ [박기찬, 김보은 지분18분의9전부] 동소 46-3 22.1㎡ [목록1과지분동일] 동구 구설로 155 1,2층각21병8층 부속건물 유기장 1,2층각8병2층 [목록1과지분동일]	대 대 유기장	300,444,000 300,444,000	일괄매각, 목록3현 한1동, 개략적인 상식286,㎡, 조사 상식공가, 목록1,2 일단지로일부도로
2016타경 12043	1	광산구 임방물대로826번길 60-5, 4층 421㎡ [월계동, 무돌예코클래스] 19.9836㎡	근린시설	70,000,000 70,000,000	

[자동차, 중기]

2016타경 14407	1	사동본거지: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625 [수원동] 등록번호:99부3196 차명:FH6x2트럭 연식:2013	자동차	115,000,000	보관장소:광주광 산구신정동156번 대주차장
2016타경 64013	1	사동본거지:광산구 수월동 수원로50번길 3-1, 301호[수원동] 등록번호:40마7706 차명:제네시스[GENESIS] 연식:2010	자동차	12,000,000	보관장소:광산구 신정동156번대주 차장

[기타]

2016타경 11682	3	나주시 왕곡면 순죽리 326-1 19728㎡ [동시 옥외고압선이 지나가고있음]	목장용지	185,443,200 185,443,200	일부농로로사용중 고압철폐1기소재
--------------	---	---	------	----------------------------	----------------------

● 광고란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전 계수